

DDR4 검사장비, 비싼 일본산 계속 쓸 필요없다

유니테스트 국산화...연말 엑시콘도 SK하이닉스 도입 이어 삼성 검토 중

日 아드반테스트 독점 '국산화 대책' DDR4 전환 수요 발 맞춰 핵심 부상

일본 아드반테스트가 사실상 독점한 DDR4 검사장비 시장에 국산화 바람이 거세다. 유니테스트가 DDR4 검사장비를 상용화한 데 이어 엑시콘도 연말 상용화를 앞뒀다. 기존 외산 검사장비 보조 역할에 그쳤던 국산 장비가 DDR4를 기점 삼아 핵심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기대다. 최근 SK하이닉스가 국산 DDR4 검사장비를 도입한 데 이어 삼성전자도 국산장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내년엔 DDR3에서 DDR4로 빠르게 전환할 예정이어서 이 분야 검사장비 수요가 커지는 만큼 저렴한 고성능 국산 장비로 대체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DDR4 검사장비를 주로 공급하는 회사는 일본 아드반테스트다. DDR4 검사장비는 전체 검사장비 중 가장 고가에 속하며 대당 가격이 40억~50억원에 달한다. 세계 후공정 장비 1위 기업인 만큼 초기 DDR4 검사장비를 독점 공급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아드반테스트 장비를 도입했다.

DDR4 검사장비를 가장 먼저 상용화한 국내 기업은 유니테스트다. 회사는 'DDR4 스피드테스트'로 지난해 매출 70억원을 거뒀고 올 상반기에 만 90억원 매출을 확보했다. 주 고객 기업은 SK하이닉스와 대만 난야다. 유니테스트는 SK하이닉스 지원을 받아 DDR4 스피드테스터를 상용화했다. 검사장비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니테스트 관계자는 "기존 DDR3 검사장비가 워낙 노후화돼 교체 시기가 됐고 DDR4 전환이 시작된 만큼 회사 전체 매출에서 DDR4 검사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엑시콘도 DDR4 검사장비를 연말 상용화한다. 엑시콘은 삼성전자 반도체 품질과 장비 국산화 등 분야에서 일한 박상준 대표를 비롯해 삼성전자 출신 임원이 다수 포진했다. 협력사에서 발생하는 매출까지 포함해 전체 매출 80%가 삼성전자에서 발생한다.

엑시콘은 지난해 매출 380억원, 영업이익 55억원으로 규모가 작다. 삼성전자가 아드반테스트 제품을 사용하는 만큼 추후 국산 장비를 도입하면 관련 사업이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장비 업체 한 관계자는 "메모리 검사장비는 외산이 핵심 역할을 하고 국산 장비가 일부 역할을 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DDR4 전환 시점부터 D램 제조사가 이 분야 장비 국산화 의지를 가졌고 장비 제조사도 안정적 기술력으로 화답함에 따라 내년부터 국산 장비로 세대교체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조사업체 IHS테크놀로지는 D램 시장에서 DDR4 비중이 2014년 2%, 올해 11%로 늘어나고 내년엔 30%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백옥진기자 withok@etnews.com

LG그룹이 사업환경 변화에 맞춰 연구개발(R&D), 구매, 생산, 마케팅 등 사업 체계 전반을 재검토한다. 시장 변화 추세에 맞지 않는 사업방식을 개선한다.

구분부 LG 회장이 6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10월 임원세미나에서 경영진에게 변화에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구 회장은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둡고 중국 경기 둔화와 함께 글로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등 경영환경이 급속히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 회장은 경영진에게 "우리 사업 방식과 R&D, 구매, 생산, 마케팅 등 주요 경영활동을 재검토해 개선해야 한다"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맞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그리고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냉엄한 현실을 인식하고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LG 임직원들은 구 회장 발언을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기존 관행을 깨고 변화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했다. '지속가능' '사업방식의 근본적 전환'이 핵심 키워드로 읽힌다.

구 회장은 '변화' '기회' 등을 자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력산업인 스마트폰과 TV 부진이 이어지면서 LG만의 성장동력 발굴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근본적이고 과감한 사업방식 변화'를 강조해 얼마 남지 않은 그룹 인사 발표에 촉각이 쏠렸다. 대폭적인 혁신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고된다. 일하는 방식과 R&D 등 전체를 점검한 후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임원세미나에는 한명기 명지대 사학과 교수가 '징비록(懲毳錄)에서 배우는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과거를 반성하여 미래에 대비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징비록의 역사적 의미를 소개했다. 현재의 경영환경을 극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LG그룹의 현실인식을 담은 주제였다.

임원세미나에서는 후지필름이 2000년대 초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대응으로 사업 재편에 성공한 사례도 공유됐다.

후지필름은 기술 컨버전스 트렌드를 예견하고 회사가 보유한 화학, 광학, 전자기계 등 원천기술을 한데 모아 융합했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카메라와 디지털 영상장비 등 신제품을 개발했고, LCD용 광학필름 등 새로운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했다.

임원세미나에는 구 회장을 비롯해 강유식 LG 경영개발원 부회장, 구분준 LG전자 부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등 최고경영진과 임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승규·서형석기자 seung@etnews.com



전자신문 아이티어 1기 "생생한 IT소식 전할게요" 전자신문은 대학생 서포터즈 '아이티어(IT+er:IT를 알리는 사람들) 1기 발대식'을 6일 본사에서 개최했다. 아이티어는 국내외 IT 관련 정보를 알리는 '기자단' 역할과 전자신문의 대학생 관련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홍보단'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변해라, 변해라, 과거 정리하라" 구분무의 '징비록' 시작됐다

LG 임원세미나서 "사업방식 전환·시장변화 인식" 주문

구분부 LG 회장이 6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10월 임원세미나에서 경영진에게 변화에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구 회장은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둡고 중국 경기 둔화와 함께 글로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등 경영환경이 급속히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 회장은 경영진에게 "우리 사업 방식과 R&D, 구매, 생산, 마케팅 등 주요 경영활동을 재검토해 개선해야 한다"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맞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그리고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냉엄한 현실을 인식하고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LG 임직원들은 구 회장 발언을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기존 관행을 깨고 변화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했다. '지속가능' '사업방식의 근본적 전환'이 핵심 키워드로 읽힌다.

구 회장은 '변화' '기회' 등을 자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력산업인 스마트폰과 TV 부진이 이어지면서 LG만의 성장동력 발굴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근본적이고 과감한 사업방식 변화'를 강조해 얼마 남지 않은 그룹 인사 발표에 촉각이 쏠렸다. 대폭적인 혁신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고된다. 일하는 방식과 R&D 등 전체를 점검한 후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임원세미나에는 한명기 명지대 사학과 교수가 '징비록(懲毳錄)에서 배우는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과거를 반성하여 미래에 대비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징비록의 역사적 의미를 소개했다. 현재의 경영환경을 극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LG그룹의 현실인식을 담은 주제였다.

임원세미나에서는 후지필름이 2000년대 초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대응으로 사업 재편에 성공한 사례도 공유됐다.

후지필름은 기술 컨버전스 트렌드를 예견하고 회사가 보유한 화학, 광학, 전자기계 등 원천기술을 한데 모아 융합했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카메라와 디지털 영상장비 등 신제품을 개발했고, LCD용 광학필름 등 새로운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했다.

임원세미나에는 구 회장을 비롯해 강유식 LG 경영개발원 부회장, 구분준 LG전자 부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등 최고경영진과 임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승규·서형석기자 seung@etnews.com

엔드포인트 보안

이제, 하나로 끝내십시오.



One Console Multiple Service!

<p>SAFE PCENTERPRISE</p> <p>PC의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PC보안 솔루션</p>	<p>SAFE PRIVACY</p> <p>개인정보·주요정보에 대해 실시간으로 파일 검색 및 암호화·격리 조치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파일 유출을 통제하는 보안솔루션</p>	<p>SAFE USB+</p> <p>하드웨어 암호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방식보다 데이터 안정성이 뛰어나며, 저장매체를 통한 안전한 데이터 이동 및 정보 유출 방지</p>	<p>SAFE NAC</p> <p>국제 표준인 802.1x 기술을 통해 유·무선의 통합 인증 및 네트워크 접근 제어를 제공하고, 정책에 따른 내부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보호</p>	<p>SAFE SCANNER</p> <p>개인정보 유출 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술적 조치를 위해 최적화된 솔루션</p>
--	--	--	--	--

서울 강서구 양천로 583 우림블루나인 A동 13층 / TEL : 02-3497-8900 / FAX : 02-578-6621 / www.nicstech.com

농협중앙회 '3대 의혹' 집중 질타

리솜리조트 특혜대출·최원병 회장 권력 집중 등 도마에

2015 국정감사

금융사기 급증·보안 불감증 지적도

방만경영과 부실대출,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여야 의원에게 질타를 받았다.

피상과 파밍 등 농협을 이용한 금융사기도 3년 새 27배나 증가했다. 대규모 정보유출사태를 빚었던 농협 보안 불감증은 여전했다.

6일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방만경영, 부실대출, 보안 불감증을 묻는 의원 질의에 "사실 관계를 떠나 저의 부덕함으로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 회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농협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제기되는 여러 의혹은 수사가 끝나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은 '리솜리조트' 재무상황이 악화됐음에도 지속적으로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유성영 의원은 리솜리조트 특혜대출 의혹 검찰 수사와 관련해 최원병 회장에게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농협이 자본잠식 회사인 리솜리조트에 1649억원을 대출해줬는데 이 중 235억원(14%)만 상환 받아 특혜대출 의혹뿐만 아니라 최

회장 동생이 고문으로 있는 H건축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최 회장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에서 NH개발이 발주한 공사로 조성된 비자금에 최 회장 측에 흘러들어간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내부직원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리솜리조트에 거액을 특혜 대출한 것은 사실상 최 회장 목인이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원병 회장은 리ゾート 산업 특성일 뿐 대출과정에 비리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농협중앙회장이 '비상임'임에도 인사권을 포함, 막대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 농협 지배구조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 회장이 8조6000억원에 달하는 조합상호지원자금으로 비상임인사 조합장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농협 보안 불감증 지적도 이어졌다. NH농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기 중 피상·파밍 사고가 3년 새 35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과 농협조합에서 발생한 금융사기 중 피상·파밍이 2012년 20건에서 작년 700건으로 35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도 1억4000만원에서 52억원으로 37배 늘었다.

이 기간 전체 금융사기는 44건에서 1191건으로 27배 이상 늘었다. 피해금액은 2012년 3억 5000만원이었지만 작년 76억원으로 22배 이상 급증했다.

김재식기자 osolgi@etnews.com